

“중동궤 에너지 위기 극복”...광주시, 공공부문 절약 총력

자원안보 위기 '경계' 격상 선제 대응 시청 야간조명 단축·승강기 제한 운영

광주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최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청사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먼저 도시의 미관을 담당하던 청사 야간 경관조명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하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시청사 1층 공용공간 조명을 주간에 약 30% 소등 운영하고 건물 내 난방시설을 즉시 중단하는 등 청사 내부 공간에 대한 고강도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주차장과 지하 복도의 조명 밀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9시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전등을 일괄 소등한다. 특히 승강기 운영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에는 전체 승강기 중 30% 이상의 운영을 중단해 불필요한 동력 소모를 억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설비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에도 나서고 있다.

노후화된 열교환기를 교체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켰다. 에너지저장장치 400kWh를 운영해 심야시간대 저렴한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전력 사용을 분산하고 있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 240kW를 운영해 청사 내 자체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차량 관리도 강화됐다.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서도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사 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절약 문화를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신창호 회계과장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희생과 실천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이 '에너지 다이어트'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절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도서관의 날’ 퍼포먼스 도서관 주간(4월12-18일)을 앞두고 9일 광주 북구 일곡도서관에서 직원들이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독서 문화 장려를 위해 도서관의 날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고흥 풍양농협 농업근로자 기숙사 완공

7억2천만원 투입 계절근로자 20여명 입주

전남도는 9일 “전남 고흥군에서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박선준 전남도 의원,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고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숙사는 2025년 전남도 자체 사업인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고흥 풍양농협이 선정돼 총사업비 7억2천만원(도비 1억2천600만원·군비 2억9천400만원·농협 3억원)을 투입,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연면적 312㎡ 규모로 건립된 기숙사는 총 6개 실(인실)의 숙소를 마련해 최대 24명이 생활할 수 있다. 숙박 공간은 물론,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이 마련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갖춰져 이달 중 베트남 계절근로자 2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인권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농업 고용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은 계절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앞으로 계절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지역농협 등과 협력해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우박·냉해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 힘쓴다

전남도, 조사 거쳐 재해 인정 건의 방침 20억원 투입 ‘열풍방상팬’ 등 설치 지원

전남도가 최근 우박과 영하권 기온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현장지도에 나섰다. 전남도는 9일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해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양제 살포 등 기술지원을 하고 조속한 피해 조사와 합동 현장검증을 통해 농민 축산식품부에 재해로 인정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복숭아 꽃눈 고사 등 냉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재해 예방시설인 방상팬·미세살수장치 가동, 개화기 기상예보 수시 확인, 냉해 예방 약제 살포, 고체연료 연소 등 철저한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재해 예방시설을 적기에 가동하면 냉해 피해 저감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전남도는 올해 국비 사업과 함께 도비 20억원을 투입해 한파와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에 취약한 과수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열풍방상팬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예방시설 설치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과와 배는 방상

팬·미세살수장치 설치 시 25%, 온풍기 설치 시 20%까지 보험료가 할인돼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 피해는 재해 예방시설 조기 설치와 재해보험 가입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현장 중심 기술 지원과 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외식업체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메뉴 개발 등 경영·서비스·마케팅 전략

광주시에 2026년 외식업 경영혁신 컨설팅’을 통해 경기 침체와 소비경향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지원한다. 컨설팅은 ▲경영 진단 ▲메뉴 개발·개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마케팅 전략 수립 ▲매출 증대 방안 제공 등을 각 업소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외식업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 경향을 반영한 메뉴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홍보 전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외식업체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

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 일반음식점과 후계음식점이며, 오는 30일까지 각 자치구 위생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업소 규모·영업기간·위생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 업소 25개소를 선정, 5월 4일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컨설팅 사업을 통해 외식업체의 경영 여력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외식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외식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텃 빈 냉장고, 다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



QR 인식